

이달의 초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이태진·우선희·김지원|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인식

|이원진|

코로나19의 건강영향과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한 인식 격차

|김동진|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인식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¹⁾

Life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Before and After COVID-19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 원고는 코로나19가 개인과 가족에게 미친 사회통합 인식의 영향을 탐색해 보고 이들의 관계를 가함으로써 사회통합도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으나 사회통합, 신뢰, 사회적 자본 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더 심화되고 정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신뢰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 범사회적 정책 방향 제시와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겪은 어려움들을 회복시키는 장기적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국으로 이름을

올렸으나 팬데믹의 경험으로 달라진 사회에서 우리의 일상과 인식도 바뀌었다. 과거 외환위기의 영향이 이후 2~3년까지 지속되었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20년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을 지속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1) 이 글은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 방안(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의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이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더 취약해지고 일상 회복이 힘겨운 사회 계층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로 제도적 신뢰, 제도의 정당성, 개방성, 참여, 대인 간 신뢰, 사회적 관계의 밀도가 거론된다. 사회통합의 역할과 중요성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연구 영역이다(여유진 외, 2021). 김미곤(2020)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바람직한 사회정책 방향은 코로나 이전 시대부터 누적되었던 문제 중에서 코로나 이후

더욱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사회통합 수준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강화하는 민주적 공론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함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적 수준에 걸맞게 사회의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각 영역의 사회통합 수준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엄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생

[표 1] 분석에 활용한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관련 공동 문항, 코로나19 관련 인식 문항

영역	문항	척도
행복과 삶의 만족도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다(0)~매우 행복했다(10) / 11점 척도
	귀하는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매우 만족한다(10) / 11점 척도
사회통합도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0)~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10) / 11점 척도
신뢰도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 / 5점 척도
사회적 자본	도움 청할 사람 유무: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정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없음(0), 있음(1)
코로나19 전후 본인 삶의 변화 및 사회의 변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1) 가구 경제 상황 2) 가족 관계 3)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 4) 경제적 수준 5) 불평등, 양극화 6) 시민의식 7) 전반적인 사회의 질	훨씬 더 나빠질 것(1)~훨씬 더 좋아질 것(5) / 5점 척도
코로나19 정부 대응 적절성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의료적 방역 조치 2)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3)사회경제정책	매우 부적절하다(1)~매우 적절하다(5) / 5점 척도

자료: 이태진, 김동진, 박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p. 39-41. <표 3-1>을 일부 발췌 수정함.

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통합, 사회갈등,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 행복과 삶의 질 등 우리 사회의 질을 결정하는 많은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일관된 연간 데이터 생산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작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선도적으로 2010년부터 삶의질연구센터(구 사회통합센터)를 설치하고, 2014년부터는 체계적인 관련 조사와 영향평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연간 단위의 주기적인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실시와 ‘사회통합 포럼’ 운영을 통해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전문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이 원고에서는 코로나19 경험의 시간적 변화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사회통합 인식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안정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2019년과 2021년, 2022년의 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사회통합 조사 문항은 <표 1>과 같다. 영역별로는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도, 신뢰도, 사회적 자본 등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021년과 2022년의 조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전후 개인의 삶과 사회 인식의 변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의 적절성 인식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영역별로 전체, 연령대

별, 경제활동 상태별, 주관적 계층별 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2 코로나19 전후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 인식²⁾

가.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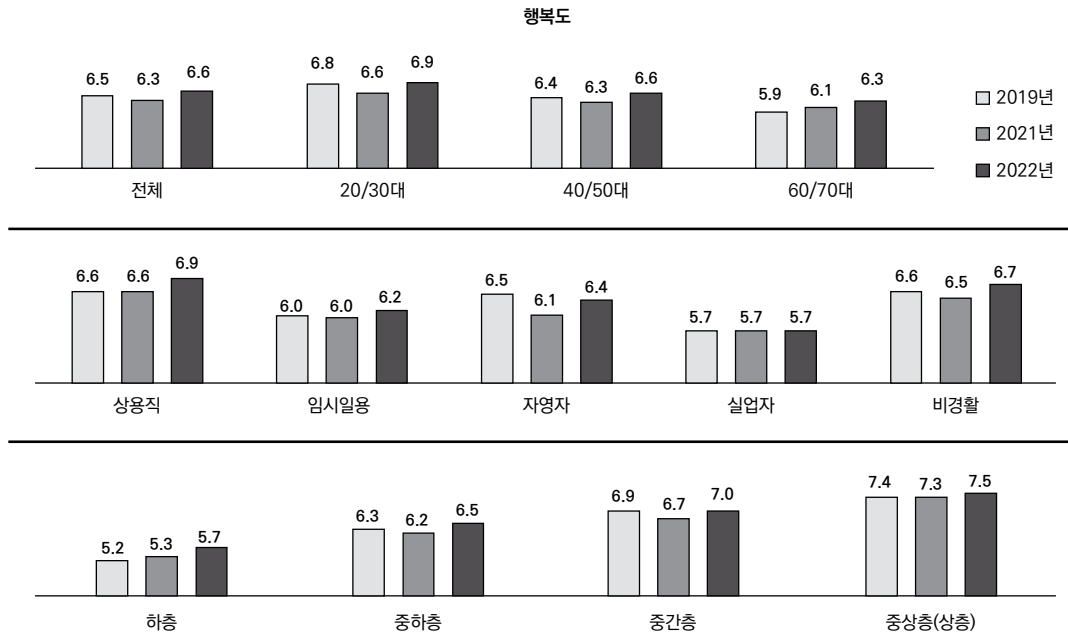
행복도는 2019년 6.5점에서 2021년에 6.3점으로 하락하였고, 2022년에는 6.6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상승하였다. 또한 연도 간 행복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을 때(Scheffe값) 2021년 대비 유의미하게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 대비 행복도가 상승하였는데, 특히 20~30대의 행복도가 가장 높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청장년층(20~50대)의 행복도 상승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22년의 행복도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난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모든 집단에서 2021년에 비해 행복도가 상승하였고, 상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자, 비경제활동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다. 자영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2) 본문에 서술된 통계적 유의성, 유의미하다라는 의미는 범주별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21년과 2022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한다. 원고 분량의 제한으로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표를 제시하는 대신 본문에만 서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 pp. 41~85에 제시된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1] 주관적 행복도

(단위: 점)



주: 행복도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0)~매우 행복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이태진, 김동진, 박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44. [그림 3-1]을 일부 발췌 수정함.

미하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코로나19의 영향이 덜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관적 계층에 따른 행복도는 하층과 중간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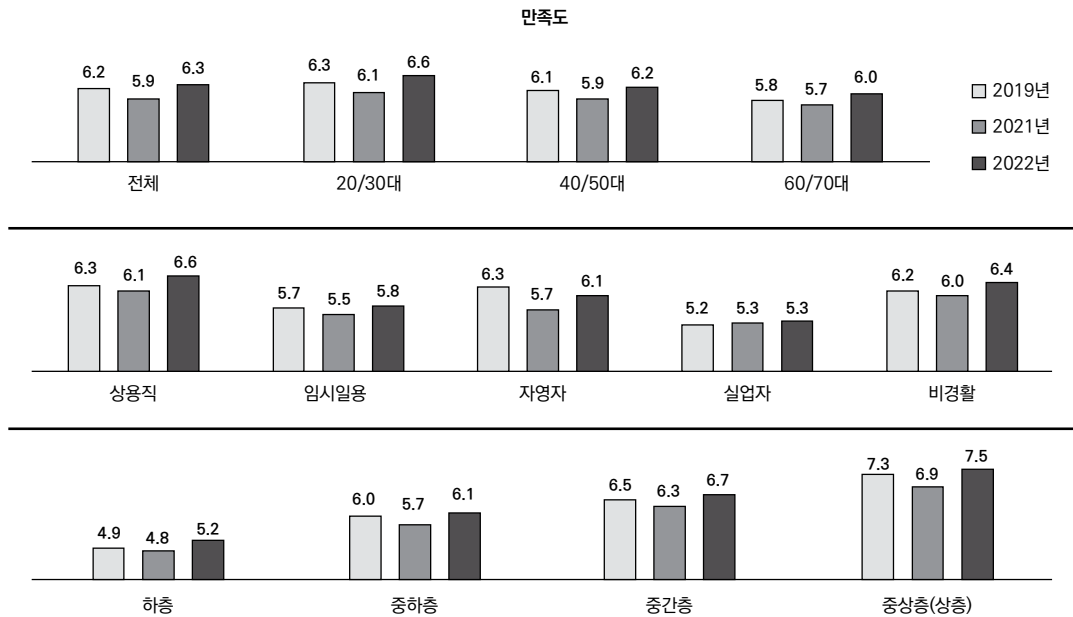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는 2022년에 6.3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6.2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5.9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2021년 대비 2022년에 0.4점 증가하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주관적인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도와 달리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여유진 외, 2021).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 비하여 2022년에는 조금 완화된 부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2021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2]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주: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매우 만족한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47. [그림 3-2]를 일부 발췌 수정함.

2019년의 만족도와 비교해도 전 연령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20~3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행복도와 유사하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2021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는 모두 상승하였지만, 상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자, 비경제활동자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별로는 하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2021년 대비 유의미하게 상승함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령

대, 경제활동 상태별 삶의 만족도에 비해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에 변화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나. 전반적인 사회통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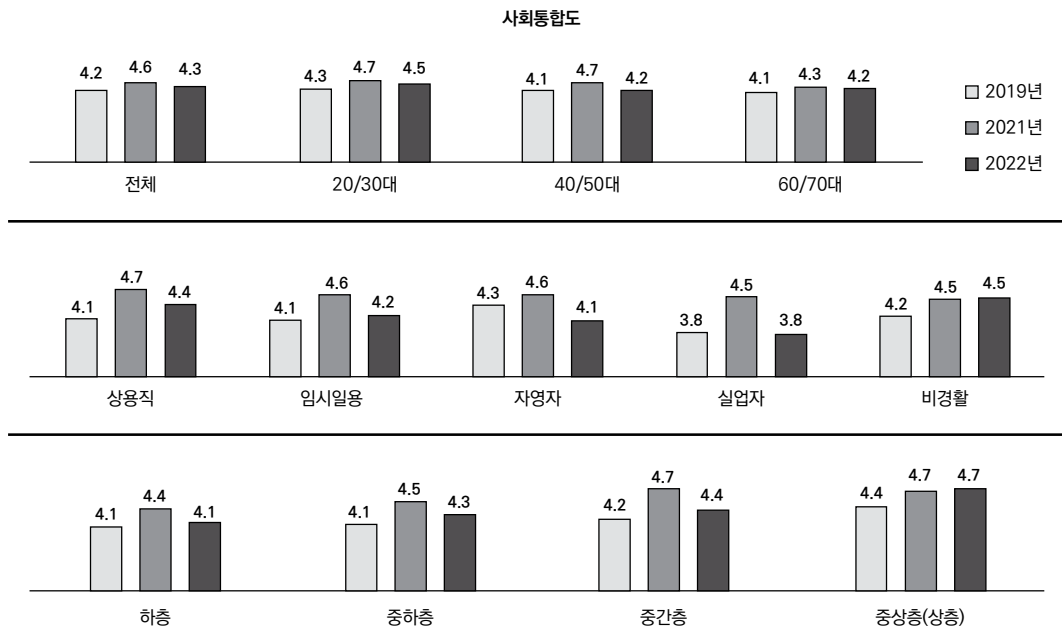
전반적인 사회통합도는 2019년 4.2점에서 2021년 4.6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평균 0.3점 하락하여 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2022년에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사회통합을 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21년과 비교하여 2022년에는 전반적인 사회통합도가 모두 하락하였다. 20~30대는 4.5점, 40~50대는 4.2점, 60~70대는 4.2점으로 나타났다. 40~50대가 가장 크게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살

펴보면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사회통합도가 비경제활동자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상용직 임금근로자(0.3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0.4점), 자영자(0.5점)에서 하락하였다. 특히 실업자는 3.8점으로 0.7점 하락하였는데 2021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비경제활동자 집단을 제외하고 모든 집단에서 사회통합도의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또한 주관적 계층별로 살펴봐도 중상층·상층

[그림 3] 사회통합도

(단위: 점)



주: 전반적인 사회통합도는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0)~매우 잘 이뤄지고 있다(10) 11점 척도로 측정됨.

자료: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Ⅹ):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55. [그림 3-5]를 일부 발췌 수정함.

을 제외하면 모두 2021년에 비하여 사회통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중간층에서 0.3점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하층은 0.3점, 중하층은 0.2점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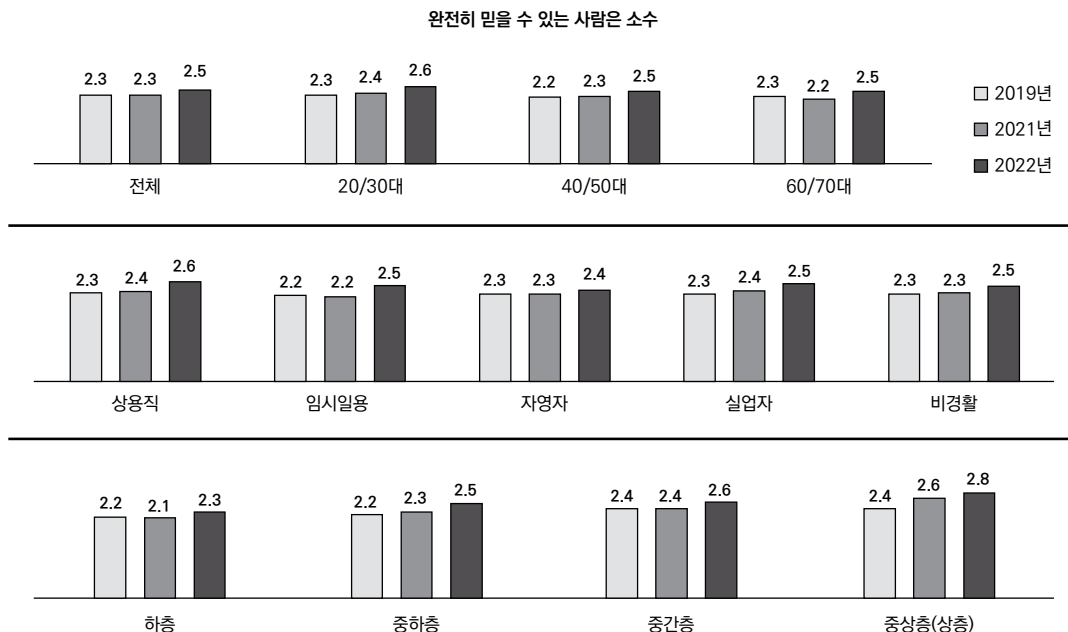
다. 대인 신뢰도와 사회적 자본

코로나19 전후로 일반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보여 주는 대인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대인 신뢰

도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 문항은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이다. 5점 척도로 계측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비동의, 즉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과 2021년에 2.3점에서 2022년에는 2.5점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점수가 상승하였고, 20~30대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

[그림 4] 대인 신뢰도

(단위: 점)



주: '내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1)-매우 반대한다(5)로 응답한 값을 활용함. 점수가 높을수록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동의.

자료: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61. [그림 3-7]을 일부 발췌 수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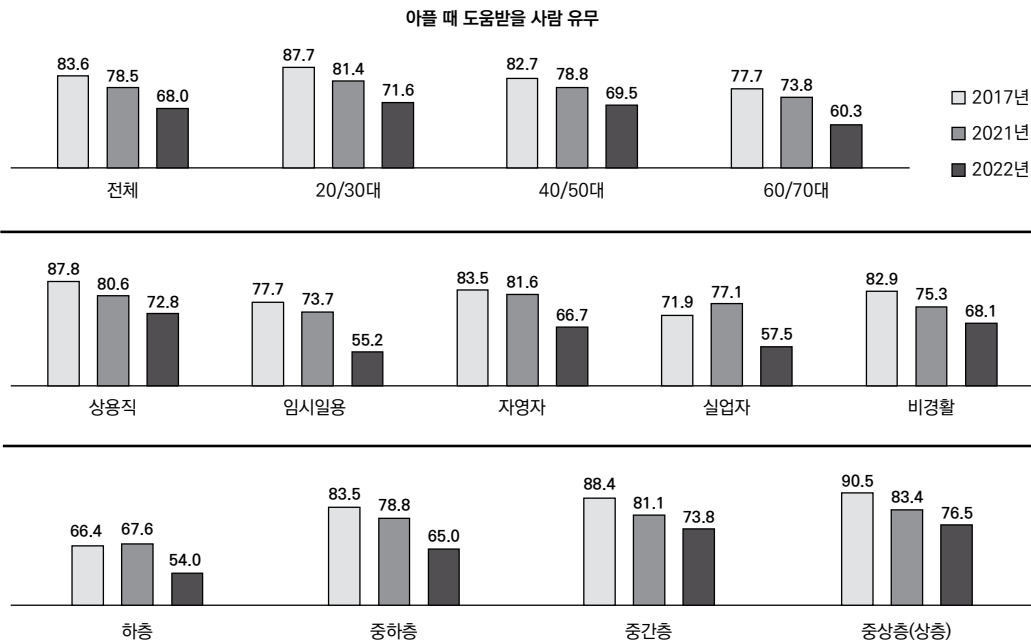
로 유의미함을 보였다. 특히 60~70대는 2021년에 비해 0.3점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대인 신뢰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022년의 대인 신뢰도가 모두 증가하였지만,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자 집단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0.3점)의 대인 신뢰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주관적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중하층과 중상층에서

2021년에 비해 각각 0.2점 증가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 자본의 유무, 즉 도움을 청할 사람 여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관련 문항은 3개로 구성하였는데, 아래 그림은 첫 번째 문항 '감기가 심하게 걸려 식사 준비나 장보기와 같은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에 대한 것이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평균적으로 70점대 중후반에서 80점대 초반의 비율을 보였다.

[그림 5] 사회적 자본: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 유무

(단위: %)



주: 기존 문항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음(1), 없음(0)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있음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71. [그림 3-11]을 일부 발췌 수정함.

그러나 2022년에는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68%로 가장 낮았다. 2021년에 비하여 2022년에는 대부분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60~70대 노년층에서 2021년 대비 13.5%포인트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볼 때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2021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18.5%포인트), 자영자(14.9%포인트)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실업자의 인식이 19.6%포인트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사회적 자본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주관적 계층별로 살펴볼 때 본인이 하층,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경우 2021년에 비하여 각각 13.6%포인트, 13.8%포인트 감소하였다. 다만 이는 주관적으로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전후 삶과 사회변화 인식과 정부 대응 인식 변화

가. 코로나19 전후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였을 때, 개인적인 삶의 변화와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2021년 조사

결과에 비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가구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점수가 2021년에는 2.57점으로 나타났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3.03점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이는 '변화 없을 것'(3점)을 기준으로 부정적 전망에서 긍정적 전망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가구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해 60~70대, 실업자, 주관적 소득계층을 하층으로 응답한 경우는 2022년에도 3점 이하로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전후 가족 및 친구·동료 관계 변화 인식에서도 2021년에 비해 2022년 응답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가족 관계에 대한 변화는 2021년 2.95점에서 2022년 3.23점으로 향상되었고, 친구·동료들과의 관계 변화 역시 2.82점에서 3.27점으로 향상되었다. 다만 실업자의 경우 가족 및 친구·동료 관계 점수가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 사이 인식의 차이가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인식 변화가 다른 경제활동 상태 집단에 비해 확연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소득계층을 중상층(상층)으로 응답한 경우 가족 관계의 연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 조사에서도 중상층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관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전후 사회의 변화 인식은 경제적 수준(1인당 GDP, 수출, 경기 등), 불평등 및 양극화 수준, 시민의식(준법의식, 문화적 성숙도 등), 전반적

[표 2] 코로나19 전후 본인 삶의 변화 인식

(단위: 점)

구분		가구 경제 상황			가족 관계			친구·동료 관계		
		2021	2022	*)	2021	2022	*)	2021	2022	*)
전체		2.57	3.03	***	2.95	3.23	***	2.82	3.27	***
연령대	20~30대	2.69	3.11	***	2.99	3.26	***	2.86	3.32	***
	40~50대	2.53	3.02	***	2.95	3.22	***	2.81	3.26	***
	60~70대	2.47	2.95	***	2.87	3.19	***	2.76	3.21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71	3.07	***	2.98	3.27	***	2.83	3.29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46	3.06	***	2.87	3.14	***	2.81	3.20	***
	자영자, 고용주	2.38	3.01	***	2.94	3.21	***	2.82	3.24	***
	실업자	2.56	2.90	***	2.98	3.15	*	2.88	3.17	*
	비경제활동자	2.60	3.03	***	2.93	3.24	***	2.78	3.29	***
주관적 계층	하층	2.31	2.88	***	2.81	3.10	***	2.75	3.21	***
	중하층	2.52	3.04	***	2.96	3.20	***	2.82	3.23	***
	중간층	2.68	3.07	***	2.96	3.29	***	2.83	3.31	***
	중상층(상층)	2.70	3.13	***	3.06	3.25	-	2.87	3.26	**

주: 1) '가구 경제 상황', '가족 관계', '친구·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질문함. 이에 대해 ①'훨씬 더 나빠질 것', ②'약간 더 나빠질 것', ③'변화 없을 것', ④'약간 더 좋아질 것', ⑤'훨씬 더 좋아질 것' 5점 척도로 측정함.

2) *)는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21년과 2022년 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p. 89-90. <표 3-21>과 <표 3-22>를 일부 발췌 수정함.

인 사회의 질 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는 전반적으로 2021년보다 2022년 점수가 다소 향상되었으나, '경제적 수준'과 '불평등 및 양극화'는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나빠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시민의식과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은 코로나19 이전과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2021년 '나빠질 것'이라는 인식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시민의식은

2021년 2.86점에서 2022년 3.10점으로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사회의 질은 2.63점에서 3.03점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업자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사이 시민의식과 사회의 질 수준에 대한 전망에서 차이가 없었다. 다른 경제활동 상태 집단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2022년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은 다른 경제활동 상태 집단에서 3점(변화 없을 것)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실업자는 2.91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표 3] 코로나19 전후 사회의 변화 인식

(단위: 점)

구분		경제적 수준			불평등 및 양극화			시민의식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		
		2021	2022	*)	2021	2022	*)	2021	2022	*)	2021	2022	*)
전체		2.32	2.70	***	2.11	2.53	***	2.86	3.10	***	2.63	3.03	***
연령대	20~30대	2.33	2.75	***	2.14	2.56	***	2.88	3.12	***	2.64	3.07	***
	40~50대	2.34	2.64	***	2.09	2.48	***	2.89	3.08	**	2.67	3.00	***
	60~70대	2.27	2.72	***	2.10	2.59	***	2.80	3.12	***	2.55	3.04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2.40	2.65	***	2.16	2.49	***	2.93	3.11	-	2.70	3.04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2.27	2.80	***	2.12	2.51	***	2.82	3.08	-	2.65	3.06	***
	자영업자, 고용주	2.29	2.71	***	2.04	2.53	***	2.79	3.10	***	2.59	3.00	***
	실업자	2.24	2.62	*	2.20	2.51	-	2.93	3.02	-	2.74	2.91	-
	비경제활동자	2.28	2.75	***	2.10	2.61	***	2.84	3.10	***	2.55	3.07	***
주관적 계층	하층	2.24	2.56	***	2.04	2.44	***	2.72	3.06	***	2.57	2.95	***
	중하층	2.31	2.69	***	2.05	2.49	***	2.83	3.08	***	2.58	3.01	***
	중간층	2.37	2.75	***	2.19	2.59	***	2.93	3.12	*	2.69	3.08	***
	중상층(상층)	2.20	2.73	*	2.12	2.64	**	2.94	3.17	-	2.70	3.08	-

주: 1) '경제적 수준(1인당 GDP, 수출, 경기 등), 불평등, 양극화, 시민의식(준법의식, 문화적 성숙도 등),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에 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향후 일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을 비교하여 본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질문함. 이에 대해 '①훨씬 더 나빠질 것, ②약간 더 나빠질 것, ③변화 없을 것, ④약간 더 좋아질 것, ⑤훨씬 더 좋아질 것' 5점 척도로 측정함.

2) *)는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21년과 2022년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p. 91-92. <표 3-23>과 <표 3-24>를 일부 발췌 수정함.

주관적 계층을 하층으로 응답한 경우 전반적인 사회의 질 수준에 대한 점수가 약간 증가하였지만 2022년에도 3점 이하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자나 하층과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나.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한 적절성 인식

코로나19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평가는 평균 3.47점에서 3.81점으로 나타나 '그저 그렇다'(3점)와 '대체로 적절하다'(4점) 사이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정부 대응은 2022년보다 2021년에 더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의료적 방역 조치는 2021년 3.71점에서 2022년 3.58점으로 감소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은 각각 3.81점에서 3.70점, 사회경제정책은 3.47점에서 3.35점으로 낮아졌다. 한편 정부의 대응 영역별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의료적 방역 조치, 사회경제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범주별 정부 대응 적절성 인식은 20~30대와 40~5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하층 및 중간층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그 외 집단에서는 연간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관련 조치에 대해 20~50대, 상용직 임금근로자, 중하층 및 중간층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22년 정부 대응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2021년과 다르게 대체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

[표 4]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한 적절성 인식

(단위: 점)

구분		의료적 방역 조치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사회경제정책		
		2021	2022	*)	2021	2022	*)	2021	2022	*)
전체		3.71	3.58	***	3.81	3.70	***	3.47	3.35	***
연령대	20~30대	3.63	3.52	**	3.78	3.68	-	3.46	3.33	**
	40~50대	3.79	3.58	***	3.86	3.68	***	3.48	3.31	***
	60~70대	3.68	3.66	-	3.77	3.75	-	3.46	3.45	-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임금근로자	3.78	3.56	***	3.88	3.68	***	3.53	3.32	***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3.67	3.54	-	3.76	3.69	-	3.48	3.33	-
	자영자, 고용주	3.66	3.58	-	3.77	3.69	-	3.33	3.33	-
	실업자	3.63	3.54	-	3.80	3.78	-	3.40	3.30	-
	비경제활동자	3.68	3.62	-	3.78	3.72	-	3.51	3.43	-
주관적 계층	하층	3.63	3.53	-	3.73	3.68	-	3.44	3.28	-
	중하층	3.70	3.54	**	3.81	3.64	***	3.44	3.29	**
	중간층	3.74	3.61	***	3.84	3.73	**	3.49	3.40	*
	중상층(상층)	3.71	3.75	-	3.81	3.89	-	3.48	3.54	-

주: 1) '귀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아래와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에 대해 '①매우 부적절하다, ②대체로 부적절하다, ③그저 그렇다, ④대체로 적절하다, ⑤매우 적절하다' 5점 척도로 측정함. 정부의 조치는 '정부의 의료적 방역 조치(진단, 치료, 백신 접종, 병상 및 의료인력 배치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 제공(코로나19 감염자 현황, 백신 접종 등 안전안내문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보),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위한 긴급복지지원 등)'임.

2) *)는 연도 간 차이분석(ANOVA)에서 F값이 유의미하고, 2021년과 2022년간 Scheffe값이 유의수준 0.05(*), 0.01(**), 0.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이태진, 김동진, 박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Ⅹ):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p. 99-94. <표 3-25>와 <표 3-26>을 일부 발췌 수정함.

료적 방역 조치,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사회경제정책에서는 60~70대가 각각 3.66점, 3.75점, 3.45점으로 가장 높았다. 주관적 계층에서는 중상층(상층)이 각각 3.75점, 3.89점, 3.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대응 조치 평가는 뚜렷한 경향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의료적 방역 조치와 사회경제정책은 비경제활동자(3.62점, 3.43점),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은 실업자(3.78점)의 적절성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4 나가며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의 연간 지속 문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전후에 중점을 두어 2019년과 2021년 그리고 2022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에 중점을 두고 2021년과 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삶과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한 적절성 인식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에 비해 삶의 행복도는 대체로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상승하였으나 사회에 대한 통합도와 신뢰도, 지지도 등 대체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이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높

아졌으나, 사회통합도는 악화되었다. 개인의 심리적 회복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사회통합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개개인의 고립된 방식의 회복이며, 더 나아가 상호 심리적 관계가 단절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통합 인식 관련 주요 항목(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도, 사회통합도 등)에서 계층 간 응답 경향이 뚜렷이 발견된다. 즉 관련 문항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경제활동 상태가 안정될수록(상용직 임금근로자), 주관적 계층이 상위일수록 일치된 응답 경향성이 나타난다. 이는 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고용 상태나 주관적 경제적 위치 등의 계층에 따른 사회 및 자신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코로나19와 관련된 답변은 연령대, 경제활동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과 거의 무관하게 유사한 답변의 경향을 보인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들은 그 영향이 소득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끼쳤을지라도 이를 초월하여 답변되고 있다. 즉 코로나19와 매개된 상황들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통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범사회적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됨에 따라 대인 신뢰도(완전히 믿을 사람이 있다)의 비율은 높아졌으나 사회적 자본(아플 때 도움을 받을 사람 있다)의 비율

은 2021년보다 모든 계층에서 낮아졌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직장이나 학교, 돌봄 현장 등에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에는 우선 일상불란한 범국가적 조치가 요구되었다. 국민은 국가의 조치에 따랐고 그 효과도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만족했고, 이는 개인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갖는 자부심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보인다. 경제적 전망이 어둡고 사회 전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상호 간 신뢰 관계의 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뚜렷해진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강화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인식은 사회 계층과 무관하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초국가적, 전 국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국민의 인식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영향은 계층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번 조사로 사회와 자신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더 심화함을 알 수 있는데, 최근 계층 간 이해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때 개인들의 인식은 경제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사회적 불평등 결과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정도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전후의 경제적 지원을 넘어 그간 잠재되어 있던 불평등의 심화를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회복시키는 장기적 정책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본 연구원의 지속적인 사회통합 연구와 실태조사 자료 축적에 기반한다.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인구 사회경제적 변화, 정치적 환경 변화, 팬데믹 위기 등 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할 때 더 큰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지난 2년여간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지만, 코로나19 위기의 영향과 의미를 모두 알지는 못한다. 많은 부분은 몇 년이 지나야 명백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 연구는 팬데믹으로 인한 취약층의 양산과 그에 대한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 지속될 메가트렌드(megatrends)인지, 코로나19 시대에 등장한 특별한 변화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시적 분석을 함께 다루지 못하여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에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갈등과 해체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코로나19

시기를 관통하는 시계열 사회통합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생활세계 영역 변수들 사이에 존재하는 지표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수준의 지표들과 비교하는 등의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 확인 및 사회의 질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㉞

참고문헌

- 김미곤. (2020).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사회정책 패러다임. **보건복지포럼**, 290, 6-19.
- 여유진, 우선희, 곽윤경, 김지원, 강상경. (2021).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Ⅷ)-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Ⅸ):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Life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Before and After COVID-19

Lee, Taejin

Woo, Sunhee

Kim, jiw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this article, we aim to examine how COVID-19 has affected the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among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explore policy options for strengthening social cohesion. Our analysis found that while Koreans report higher levels of subjective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now compared to 2020, when COVID-19 was at its height,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has deteriorated, as evidenced by their reporting lower levels of social cohesion, trust, and social capital. Furthermore, how Koreans perceive their own lives and society has been increasingly determined depending on the social class with which they are identified, and this trend has become more entrenched. In this light,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policy directions for rebuilding social trust and expanding the government's role and responsibility in supporting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Additionally, effective policies are required to reduce and prevent socioeconomic inequalities and to provide support for individuals to recover from the losses they have suffered due to COVID-19.